

정읍 신토불이 '화식 한우'로 FTA위기 돌파

(火食)

2017년까지 사육두수 1000마리로 늘리기로

유통센터 구축해 안정적인 국산 원료 공급도

정읍시가 쇠육을 끓여 먹이는 전통 방식의 한우를 생산,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정읍시는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화식(火食) 한우의 사육두수를 오는 2017년까지 1000마리로 늘릴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화식한우는 외국산 곡물로 만든 배합사

료 대신 우리 땅에서 나오는 볏짚과 쌀겨, 시래기, 콩 등을 끓여 먹이는 한우를 말한다. 사료비가 배합사료보다 40~50%가량 절감되는 반면 육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가격은 일반 한우보다 70%나 높다.

한우를 키우는 전통적인 방식이었으나 농가당 사육 두수가 급격히 늘며 요즘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다. 일손이 많이 가

는데다 볏짚이나 시래기와 같은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려워 도태된 것이다.

우선 정읍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원료 유통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센터는 계절에 따라 일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배춧잎이나 보리 등의 원료를 가공해 장기간 보관하며 농가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농가에는 대규모로 소축을 풀 수 있는 화식기도 지원한다. 화식기 한 대면 100마리 안팎의 소를 키울 수 있다.

정읍시는 이와 함께 화식을 시도하는 농가에 대한 경영 컨설팅을 강화하고 판로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300마리인 화식 한우를 내년엔 450마리, 2016년에 600마리, 2017년에 1000마리 수준으로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서영중 정읍시 기획담당관은 “화식 한우는 배설물도 유기질 퇴비로 쓸 수 있는 등 장점이 아주 많다”며 “잇따르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설 자리를 잃어가는 한우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s@

전남도 보건복지정책 전국서 인정

음식문화개선 최우수 선정

올 기관평가 우수상 10회

전남도가 보건복지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잇따라 상을 받았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 보건복지국은 최근 정부평가에서 ‘음식문화개선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앞서 보건복지국은 지난 5일 식품안전관리 분야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지난달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가 공동 주관한 시책 평가에서 지역사회복지대상 수상 기관으로 선정돼 이낙연 전남지사가 직접 표창을

받았다.

이어 복지비 부정 수급 예방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복지부로부터 1000만원 상금을 받는 등 올해 기관평가 우수상 이상 받은 것만 해도 10차례다.

전남도가 올해 보건복지분야에서 이러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민선 6기 출범 후 복지·서민정책에 초점을 맞춘 결과라는 평가다.

신현숙 도 보건복지국장은 “도정 방침인 ‘온정 있는 도민복지’를 실현하고자 전 직원이 총력을 다해 노력한 것을 중앙정부 등에서 높이 평가해줬다”며 “전남도가 훈훈한 지역공동체가 되고 도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지리산 순한한우' 축산물 경진대회 최우수

보성 등 8개 시·군 연합 생산

친환경 인증으로 전국서 인기

전국 최초의 한우 광역브랜드인 '지리산 순한한우'가 최근 대전시 유성호텔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2014년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최우수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한우 브랜드로서 공급능력과 고품질, 위생안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지리산 순한한우'는 전남 동부권 순천·광양시와 보성·구례·곡성 등 8개 시·군 7개 축협이 연합해 지난 2005년 8월에 만든 한우 브랜드로서 현재 500농가에서 5만여두를 사육하고 있다. 친환경

축산(무항생제) 인증품만을 생산해 전국 롯데마트 60여개점과 7개 축협 판매장, 명품관에서 판매하고 있다.

특히 '지리산 순한한우'는 깨끗한 축산물 관련 상을 휩쓸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축산물 브랜드대전에서 2006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2009년에는 대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 (사)소비자시민모임으로부터 9년연속 우수 축산물 인증(2006년~2014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지리산 순한한우사업단'은 지난해 12월에 브랜드 파워를 높이고 지역 한우산업의 중심체 역할을 하기 위해 'NH순한한우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해 새롭게 출범했다.

/별교=김윤성기자 kim0686@

목포 해양항만청

생태계 보호 '앞장'

목포 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형태)이 완도 청산도 해양생태계 보호에 착수했다.

목포항만청은 “청산도 해양생태계 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해양생태계 보호구역 3개소(가거도, 소화도, 청산도)에 대한 관리 기본계획이 올해 중 모두 수립 시행되게 됐다.

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330억원을 투입해 3개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청산도 슬로시티 및 해양생태계 보호구역을 사회적 약자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한 사업이 특색이다.

장애인과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 및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해안 슬로길 데크탐방로 설치사업'이 계획돼 있다. 또한 '바우처 제도'를 활용해 장애인과 사회복지시설 아동, 저소득층 노인 등이 유료로 운영되는 생태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무료 쿠폰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계획돼 있다.

한편 완도 청산도 주변해역(면적 71.38㎢)은 '둔한진총산호', '세로줄조개사든' 등 주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어 보전 및 학술적 연구 가치가 높은 해역으로 인정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생태계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동지팍죽 새알만들기 재미있어요” 남원지역에 거주하는 이주여성들이 최근 '결혼이민자(하트-맘 맺기) 전통음식만들기' 행사에 참여해 동지팍죽 새알을 빚고 있다. 이번 행사는 결혼 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멘토-멘티 결연사업의 하나다. /남원=정규섭기자 jgs@

나주문화원장 선거인단 자격 놓고 불공정 시비

투표권 박탈 64명 항의

오는 30일 예정인 나주문화원장(임기 4년) 선거를 앞두고 나주문화원이 내홍(內訌)을 겪고 있다.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단 자격을 두고 문화원 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자간 해석이 달라 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다.

22일 나주문화원에 따르면 현재 임명령(55) 현 문화원 부원장과 나익수(65) 전 나주시의회의장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하지만 선거인단수 확장을 두고 문화원 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자간 해석을 달리해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선거를 총괄하는 문화원

선거관리위원회 5명은 당초 총 764명의 회원 가운데 투표인단에 참여하는 조건에 해당되는 총 223명의 회원을 잠정 확정, 후보자 프로필과 공약 안내문 등을 발송했다.

그러나 문화원 선관위는 발송지후 '(선거) 6개월 이전에 회원등록을 하고 회비를 납부했어도 총회에서 현 문화원장이 이사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조항을 들어 회원 64명의 투표권을 박탈하고 회원 155명에게만 투표권을 확정해 버렸다.

이에 투표권을 박탈당한 회원들은 23일 시청앞 농어업회소 강당에서 열린 출마 후보자의 정책 토론회장에서 선거무효를

주장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문화원 회원인 서모(58)씨는 “한 선거관리위원회 문화원 사무실도 아닌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전화를 걸어 '회비를 누가 내주지 않았냐', '누가 가입을 권유했냐'며 따지고 물어 사실대로 말했지만 최종 투표인단에 포함되지 않지 않았다”며 “문화원 선관위가 특정 후보의 편들어주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의초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인단 선정은 규정에 의해서 진행했다.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감정가이하

- 담양대덕면 산 236132㎡(71430) 공시가 9천 사할 지도원 적합 1억5천
- 금남로 가구점 대지 416㎡(126)공시가 12억7천 은행 8억 매도 11억
- 금남로 4가 대로변 대지 317㎡(97)건평 1235㎡(363) 투자양호 14억
- 충청남도 태안군 해수욕장 펜션 최적합지 1984㎡(600) 감정7억7400 은행5억8천 감정가로 매도나 교환원함.

- 롯데백화점 인근 시설좋은 모텔 대지 390㎡(118) 건평 1375㎡(416) 객실 33 은행 10억8천 교환가능 14억7천
-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주거지 6908㎡(2090) 대출 2억 이천만해감
- 누문동 상업지역 486㎡(147)와 주택 공시지가 2억3500 매도 3억천
- 전원주택, 별장부지 담양군 봉산면 와우리 1645㎡(498) 2백평이나 3백평선 분할 매도 가능 평당 54만원

- 금매 광천동 터미널 인근 6층 건물 대지 661㎡(200)건평 3055㎡(924) 4층 133평은 공실 대출15억 전세 9억 월 500 회사 사육 등 적합 25억

투자 매도 교환

- 금매 광산구 하산동 그린벨트 대지 건축물 대장 있음 950㎡(288)대출 9천 매도5백
- 금매 무안군 망운면 자연녹지 22238㎡(667) 대지 555㎡(168)대출 8천 매도 5백
- 쌍촌동 신축건물 대지 215㎡(65)건평 418㎡(126) 안집과 원룸 5개 투룸 4개 은행 1억5천 매도 6억3천
- 조선대 앞 대로변 동명동 5층 건물 대지318㎡(96) 건평 736㎡(228) 상가와 안집, 원룸 18개 보증금 1억에 월 500천 수익 8억7천
- 함평군 해보면 문장사거리 코너 준주거 334㎡대출 5천 매도 1억6천
- 전원주택지 남구 압촌동 대지 575㎡(174) 매도 1억8천
- 상가와 공동주택 적합 산수시장 준주거 284㎡(87) 3억7천
- 상가와 공동주택 적합 광산구 신촌동 284㎡(86) 2억5천
-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7934㎡(2400) 남양유업인도 도로 좋은 공장, 창고 등 다용도 11억 자연 녹지와 주거지역임
- 화정역 5분 거리 대지 645㎡(195)별장용 단독주택용 적합 3억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시장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전원주택

- ▶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대지 및 전 2,305㎡, 주택 2동 각종 유실수 화초 식재됨. 전방 양호, 매4억
- ▶ 나주시 용산동 대지 및 전 5,100㎡ 황토 주택 3동 교통편리, 매7억
- ▶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 대지 및 전 2,148㎡ 건물 99㎡ 도로 및 환경양호 보림사 인근 매 2억3천만

농지 / 임야

- ▶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전 및 대지 6,600㎡ 주택 2차선 도로변 및 4차선 국도점, 매10억
- ▶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담 6,605㎡ 도로양호, 전으로 사용가능, 매1억 4천만
- ▶ 나주시 광산면 동촌리 전 25,120㎡ 2차선 도로변, 관리지역, 투자유망 매5억
- ▶ 나주시 세지면 교신리 전(지목상 임야) 20,495㎡ 영농조건 양호, 임대수익 양호, 투자유망, 매3억 7천만
- ▶ 나주시 관정동 매립지 전 7,547㎡, 2차선 도로변, 매3억 2천만
- ▶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담 2,975㎡, 2차선 도로변, 매1억 3천만
- ▶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담 13,530㎡, 면 소재지, 매3억
- ▶ 나주시 남평면 광촌리 임야 1,384,140㎡(대지, 농지 포함)소나무 양호, 수려원, 선산 적합, 매30억
- ▶ 영암군 금정면 안로리 대봉김나무 과수원, 고소득 가능, 매4억
- ▶ 영암군 덕진면 금강리 전 6,600㎡ 4차선 도로변, 계획 관리지역, 매2억 9천만
-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70,835㎡4차선 국도변, 전체 계획 관리지역, 남향, 투자유망, 매17억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 010-9510-1150, 061) 333-1150

투자만점(지산동)

전원주택, 사찰부지 등 최적! 동일조건에서 더이상 싼땅은 없습니다.

- 지역 : 주거 및 보건복지지역(도로점)
- 지목 : 전
- 면적 : 3.71㎡
- 매가 : 3.3㎡ 37만

신축 상가 임대

금호 2지구 먹자골목 중심 상권 주차빌딩 1층 상가

- 면적 : 117㎡ ~ 175㎡ (1층), 258㎡(2층)
- 용도 : 모든 업종 가능
- 준공 : 2014. 12. 31
- 기타 : 면적, 임대가 다양, 권리금 없음

최고의 전원주택지

서구 세하동 주거지역, 주변 환경 및 조망권 최고, 더 이상 좋은 전원주택지는 없습니다.

- 지역 : 3중주거지역(2필지)
- 지목 : 전
- 면적 : ①600㎡ ②780㎡
- 매가 : 3.3㎡ 당 140만

세하동 토지

세하동 서광주역 뒤 주거지역 및 그린벨트, 도로 점, 전원주택지 및 투자가치에 좋습니다.

- 지역 : 주거지역 및 자연녹지
- 지목 : 대지 및 임야(현황:전)
- 면적 : 7,439㎡ (주거1,112㎡, 녹지 6,327㎡)
- 매가 : 3.3㎡ 당 38만

지번문의 사절

행운(구.대창)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송 창 석

011-642-7777

1%대 초저금리시대 수익형부동산에 뭉치돈이 몰린다!

시세차익 대신 임대수익 노력

5~7억원대 여운돈을 가진 50~60대 은퇴자들은 안정적인 임대수익률을 찾아서 투자한다!

광주첨단지구 유동인구 많은 OGV영화관 옆 3층건물

근린생활시설 상가 17억

010-2804-0632